# 불교 아카이브 사업 실효 · 방향성을 찾다

## 동국대 불교학술원, 30일 'ABC사업 실효와 지향' 세미나

### 개교 110주년 · 전서 발간 기념
### 아카이브 활용 방안 등 논의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추진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방향성과 활용도를 되짚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9월 30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국대 개교 110주년과 〈한국불교전서〉 50권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가치와 성과' 기조 발표를 시작한다.

이후 주제 발표로 △김천학(동국대)의 '원효 저술 일문(逸文)의 실태와 의의' △원과 스님(동국대)의 〈승만경〉 일승장에 대한 원효의 해설' △후지모토 유키오(토야마대)의 '고려판 용감수경(龍龕水鏡)과 조선판 용감수경에 대해' △최애리(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 교장〉의 가치와 활용방안' △정재영 등(한국기술교육대)의 '조선 초기 〈능엄경〉 석독구결 자료의 발견과 의미' △이대형(동국대)의 '조선 승려 문집의 성격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편찬의 가치' △오지연(동국대)의 '〈석보상절〉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와 과제' △한상길(동국대)의 '조선시대 불교의례와 〈한국불교전서〉의 의례자료' △김미숙(동국대)의 '〈일본표해록〉에 기반한 대흥사 천불설화의 콘텐츠 개발과 극화 방안' △이재수(동국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된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신라부터 조선까지 한국불교의 논저 324종을 한글화하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사업이다. 지난 5월 50권을 출간한 한국불교전서는 한 권이 출간될 때마다 불교학계서 연구 주체 채택되는 등 적지 않은 이슈가 돼 왔다.

특히, 1800년대 초 현정 스님이 불상을 싣고 표류하다가 일본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일본표해록(故 김상현 교수 역주)〉은 당시 불사의 모습과 일본 사회상을 알게 하는 문화사적 자료로써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논문 주제로 다뤄졌다.

정승석 원장은 "ABC 사업은 올해로 5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ABC 사업 성과의 가치를 알리고 차후 주력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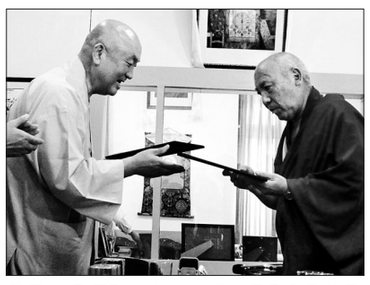
한국불교전서 발간에 대해서도 "300권 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은 한글대장경 완간에 버금가는 대작불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동국대 출판부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50권 발간기념 도서목록' 팸플릿을 제작해 무료 배포 중이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경주캠 · 티베트정부도서관 MOU

### 향후 자료 수집 사업 구체화 전망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사진 왼쪽)과 티베트정부도서관장 게셰학돌 스님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지난 8월 30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정부도서관 회의실에서 티베트정부도서관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티베트정부도서관이 자료협조 및 학술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향후 포교 문화사업 등 다방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티베트대장경 및 불교대장경 제 판본의 수집과 공유 △대장경의 보존 및 복원 연수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역경전문가의 초청 및 교육 △디지털화 된 티베트대장경 및 산스크리트 대장경 자료의 제공 △역경인력의 파견교육 등의 사업에서 협력하게 된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인도불교라는 불법의 대해를 조망함으로써 한국불교의 특수성과 고유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인도불교 경전의 원뜻에 가까운 부처님의 말씀을 한국의 승가대중과 학계에 전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한마음'은 평화로운 인류공동체 위한 사상"

## 한자경 교수, 대행 선사의 '한마음' 학술적 고찰

### 〈선학〉 제44호에 논문 게재해
### 철학 관점서 '한마음요전' 분석
### 한마음, 일체 만물과 호응하는 것
### "공성 통감해야 한마음에 이르러
### 진정한 무아는 한마음으로 완성"

"우리는 우리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중략〉불법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한마음요전, P300〉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한마음'을 학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그간 석 · 박사 논문으로 대행 선사의 주인공 개념과 수행 체계 연구가 각각 1편 있었지만, 학계 중진학자가 학회지에 '한마음'을 조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발간하는 학회지 〈선학〉 제44호에 '한마음이란 무엇인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주제의 논문을 게재했다.

"선불교의 '즉심시불'의 마음, 원효스님의 일심, 지눌 스님이 강조한 진심은 모두 일심인 한마음"임을 전제한 한 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선사의 저서인 〈한마음요전〉을 통해 조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근원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타자'를 설정하지만, 〈한마음요전〉에서는 근원의 뿌리를 나 자신의 바깥이 아닌 현재의 나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나의 내적 근원이면서 현상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불성(佛性)'이며, 〈한마음요전〉에서는 이 같은 무한의 근거를 무한히 큰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한마음'이라고 풀이한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한마음요전〉은 우리의 의식과 육신이 영원한 생명인 한마음에 기반해 비로소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논한다"며 "이 심층의 한마음을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이며, 바로 근본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한마음사상은 불교의 '무아(無我)'와 상통한다고 해석했다. "불성은 무아로 밝혀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보편적 마음"이라고 밝힌 한 교수는 "내 안에서 한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자성성 내지 공성을 통감해야 한다. 〈한마음요전〉은 한마음사상이 무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무아는 한마음을 통해 완성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마음사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개념이다. 〈한마음요전〉에서는 "나의 참 주인이니까 주인공이요, 또 텅 비었기에 '빌 공자' 주인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 교수는 "주인공은 개별자 안의 심층 보편자, 공통의 생명이고 전체 에너지"라며 "심층에서는 일체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돼 있으며, 이 망을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업의 총체를 관장하는 자가 주인공이며, 주인공은 안에 있는 업을 녹일 수 있다"고 주인공의 작용력을 설명했다.

이어 "한마음의 주인공은 표층의식의 벽을 허물면서 드러난다"면서 "〈한마음요전〉에서는 나의 의식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인 한마음이 되기까지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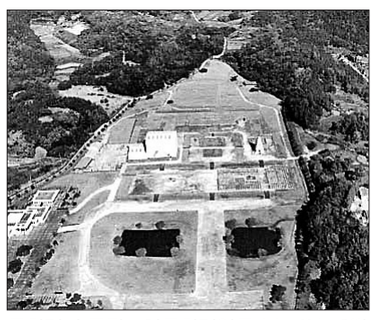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행 선사의 한마음으로 알차리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교수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배려와 협동보다는 경쟁과 투쟁에 내몰려 한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대행 스님은 '전 세계의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깨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져 보살의 행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면서 "한마음사상은 진정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류공동체를 위한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익산 미륵사지 복원 · 정비 위한 발굴 착수

## 부여문화재硏, 22일부터 17차 정밀 발굴 시행

###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재발굴
### 강당지 남쪽 · 中院 등 주요 대상
### 미륵사지 기초 자료 확보 기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오는 9월 22일부터 미륵사지에 대한 17차 발굴을 시행한다. 2000년 이후 16년만에 발굴 재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 복원 · 정비를 위한 발굴이 추진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9월 22일부터 익산 미륵사지 제17차 발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중원 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의 관람로 공사 중 발견된 석재와 배수로에 대한 추가 조사와 미륵사지 복원 · 정비에 필요한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구역은 총 4,034㎡(강당지 남편 3,465㎡, 중원 남북중심축 312㎡, 동원 중문지 256㎡)이다.

앞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정밀발굴을 위해 강당지 남쪽으로 석부재가 발견된 강당지와 중원 회랑지 사이에서 지하물리탐사(GPR)를 사전 실시했다. 그 결과, 건물지 사이 지하에 석축배수로 등이 확인돼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해 백제인의 뛰어난 토목건축 기술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발굴 추진을 위해, 굴삭기와 소형 트럭을 사용하여 성토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원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차례 발굴현장을 직접 설명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 발굴은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라며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를 파악하고,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사찰의 구조 자체는 거의 규명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건물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하며 "미륵사지 이전에 세워진 선대의 건물 유구(遺構)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륵사지 복원 고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유적정비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는 중서부고도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백제 시대 가람배치의 양상, 통일신라 시대의 동 · 서 연못지, 조선 시대 가마 등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역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도 함께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 승단정화운동 어떻게 이뤄졌을까

## 한일불교유학생회, 30일 토론회

불교 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대표 홍선)는 9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서에는 승단정화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기고문 등이 수록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이 '승단정화운동에 대해'를,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불교지도자에 대해'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한일불교유학생회는 "승단정화운동은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운동, 이념,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료집, 논문집 등이 희소했다"면서 "이번 연구서는 교류회의 회원인 조계종의 원로 스님들이 기획, 논문 및 자료 선정 등의 편집에 직접 참여해 책의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완전한 지혜의 세계,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화제의 신간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제4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510-2076 / 팩스 051)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6년 12월 5일
세주 묘엄 스님 제5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